겨울진객 속속 도착 남도는 철새의 낙원

전남 곳곳 수만마리 월동 준비
지자체 쉼터 조성 등 손님맞이
영산강청, 밀렵 특별단속 나서

고천암호를 비롯한 남도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 겨울의 진객(珍客)이 속속 찾아와 겨우살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가창오리떼로 유명한 고천암호에 쇠기러기 500여마리와 청둥오리 등 20여종의 겨울 철새 1만여마리가 찾아들어 활기를 띄고 있다. 갈대밭과 개펄에서 고기와 게를 잡아먹는 모습이나 추수가 끝난 들에서 곡식 낟알을 주워먹는 등 한가롭게 겨울 날 채비를 하는 철새들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고천암호의 명물 가창오리떼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고천암호에서 13년째 '철새 지킴이'를 하고 있는 김정웅(71)씨는 "전 세계적으로 50여만마리 밖에 없는 가창오리떼 중 40여만마리가 매년 11월 중순 찾아왔으나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12월에나 올 듯하다"고 말했다.

순천만에도 겨울 철새의 월동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검은목두루미와 청둥오리·고방오리 등 오리류 3천여마리, 붉은부리갈매기·검은머리갈매기·재갈매기 등 갈매기류 500여마리 등 60종에 이르는 겨울 철새 7천여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 228호인 흑두루미는 지난달 28일 70여마리가 처음 관찰된 뒤 최근에는 300여마리로 개체수가 부쩍 늘었다. 순천시는 겨울 철새가 최대 110종에 이르고, 개체수도 2만 마리 이상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12월과 내년 1월 사이가 '탐조의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만에도 큰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200여마리와 청둥오리 400여마리 등이 월동 채비를 하느라 분주히 날개 짓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철새를 맞이하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순천시는 겨울을 나기 위해 순천만 일대에 날아든 철새를 위해 수확이 끝난 논 250ha에 볏짚을 남겨두고, 순천만에 인접한 70ha 규모의 보리밭을 철새 쉼터로 조성했다. 해남군도 보리와 밀 재배지 386ha를 철새 쉼터로 조성하고 수확이 끝난 논 110ha에 볏짚을 남겨두는 등 겨울 철새의 월동을 돕고 있다.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는 순천만, 해남의 고천암호·금호호·영암호, 강진만, 보성 득량만, 함평만, 고흥만 등을 남도의 주요 철새 도래지로 꼽고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철새 도래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4개월 간 경찰과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동부 지원금 5억원 허위서류 꾸며 빼돌려

광주지검, 업체 대표 11명 기소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0일 허위 서류를 꾸며 노동부의 각종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모 전자업체 대표 강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3명은 근로자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2억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업대상 근로자를 출근시켜 근로활동을 하게 해놓고도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노동부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의 각종 장려금을 빼돌린 사범도 검찰에 적발됐다. 최모(46)씨는 장기실업자 19명을 채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8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총 1억4천700여만원을 빼돌린 장모(38)씨 등 업주 6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33)씨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집행기관인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등과 함께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거법위반 공무원 등 8명 입건

강진경찰은 10일 현직 군수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복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무원 B(59)씨 등 전·현직 공무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달 23일 모 지역신문에 실린 '○군수 압도적 1위 차지'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사 내용을 군청 발간실에서 1천500부 복사해 관내 이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부적합 MRI·CT로 촬영 보험금 수령

전남 4개 병원 적발

경찰, 수사 확대

화질 및 판독기능이 떨어지는 부실 의료장비로 환자를 진료한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챙긴 전남지역 병원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로 환자를 촬영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전남 모 병원장 A(47)씨 등 병원장 4명과 방사선실장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이용해 환자를 촬영한 뒤 14개 보험사로부터 1천1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대당 수억원인 장비를 새로 사거나 보수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존 장비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남의 다른 병원들도 부적합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0대 여성들 사는 원룸
괴한 침입 흉기 휘둘러

10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동 원룸에 괴한이 침입, A(19)양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괴한은 A양과 B(19)양 등이 집에 도착하기 전 원룸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또 다른 C(19)양을 깨워 금품을 요구하던 중 A양 등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경찰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품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5년 전 무임승차 죄송" 6천원 보내

쌍나팔

○…25년 전 무임승차했던 승객이 사죄 편지와 당시 요금을 버스 회사로 보내와 눈길.

○…10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한 승객이 "25년 전 광주에서 순천까지 차표를 내지 않고 버스를 탔다"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요금 동봉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메모와 당시 버스요금 6천원을 담은 익명의 편지를 지난 6일 금호터미널로 보내왔다는 것.

○…회사측은 25년전 성인 버스요금을 동봉한 점으로 미뤄 당시 '광주고속'(현 금호고속)을 이용했던 40~50대 고객일 것으로 보고 "20년 넘게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야 마음의 짐을 털어내 홀가분해졌을 것 같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종플루에 AI 겹칠라" 농가 방역 비상

철새 날아들자 닭·오리 농가, 지자체 '노심초사'

겨울 철새가 순천만을 비롯한 남도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 속속 모여들면서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양계농가와 자치단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AI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만나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22개 시군과 축산기술연구소 등 27개 기관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고천암호 등 철새 도래지 주변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연일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도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고천암호 입구에는 탐조객을 위한 소독발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혹시나 모를 피해를 우려해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닭·오리 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는 1, 2공장 정문에 분무식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차량을 소독하는 한편 출입자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등 방역과 출입자 체크를 강화하고 있다. 화인코리아 총무부 나종영 차장은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는 직원은 출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해남군 황산면에서 닭 7만5천마리를 사육하는 임해숙씨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양계장 안팎을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영암군 신북면의 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124만마리의 닭이 도살 처분됐으며, 앞서 2003년 나주시 산포면의 한 오리농가에서도 AI가 발생, 23만마리가 도살처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는 3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축정과 유철혁씨는 "고병원성 AI 감염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북방 철새에 의한 것일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